

후원자 인터뷰

기업 경영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광석 대표이사 최고의 기쁨이 되자!

텐테너즈, 가스펠스타C 등 씨체널방송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회사 이름이 있다. 자외선 경화기, 자외선 램프를 직접 개발 제작하며 접착제 및 응용제품을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국내유일의 회사, 주은유브이텍(주)이다.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자'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업이기도 하다. 이곳을 이끌고 계신 대표이사이자 3년 전부터 씨체널방송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이광석 장로를 만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C채널의 든든한 후원자

항상 복음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120여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저 역시 회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이전에 기독교방송을 접하며 받았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때마침 제가 출석하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회로 생각하여 2011년부터 C채널방송 후원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아내인 강옥희 권사도 같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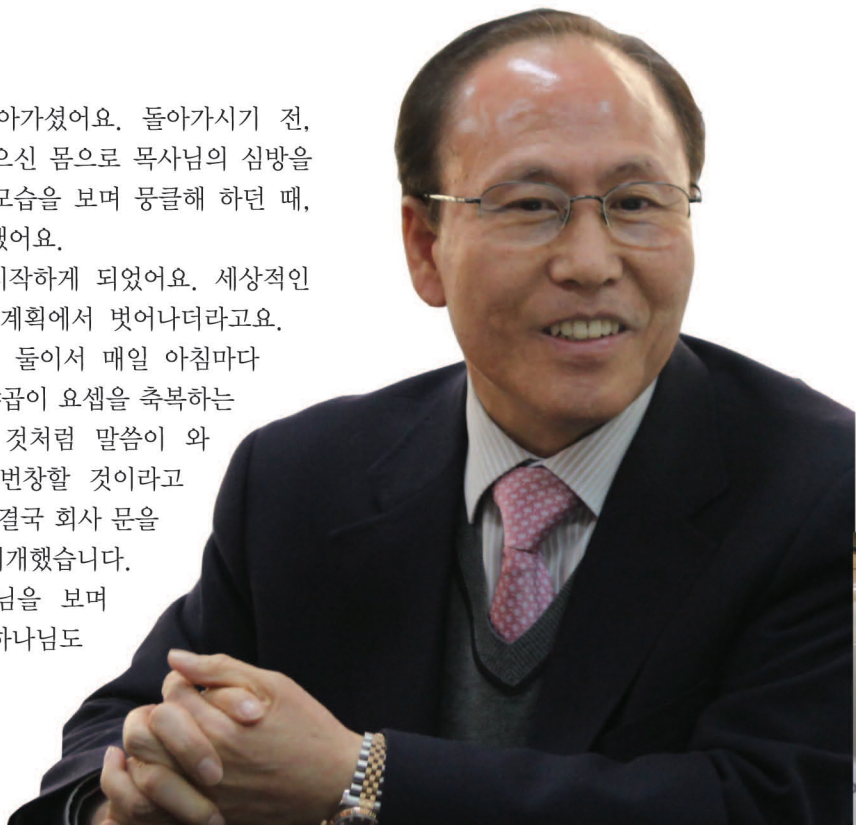
나의 믿음의 성장

제가 고1 여름방학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 찬양 부르시던 모습과 편찮으신 몸으로 목사님의 심방을 기다리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해 하던 때, 친한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988년도에는 친척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경험으로는 꼭 성공할 일인데 자꾸만 계획에서 벗어나더라고요.

당시 직원은 저와 여직원 한명, 그렇게 둘이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죠. 하루는 창세기 48장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나누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말씀을 받았으니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은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 문을 닫으며 저의 세상적인 욕심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지금의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회사 이야기1, 직원예배

저희회사에는 매일아침 직원예배가 있어요. 해외출장이 아니면 매일 참석하는 새벽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직원들과 나눕니다. 신앙이 없는 직원이 처음에는 지루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원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주셔서 지금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야기2, 믿는 회사

오래된 거래처들은 저희 회사가 ‘믿는 회사’라는 것을 알아요. 거래처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믿는 회사니 해결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거래처에서 먼저 기도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장 간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 직원들이 또 아침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회사를 통해 거래처에도 은혜가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회사 이야기3,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한번은 저희가 기계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할 때였어요. 거래처의 물건과 함께 중국으로 보냈는데 선박회사의 자금문제로 사흘이면 도착할 배가 바다에 한 달 동안 묶여 있었어요. 덥고 습기 찬 바닷바람을 맞으면 기계들은 쓸 수 없게 되고, 게다가 물건을 받아야 생산을 할 수 있는 고객기업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죠. 새벽예배를 계속 참석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채웠죠. 감사하게도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기계도 전혀 녹슬지 않고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인간이 생각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기도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회사이야기4, 비전

제 비전은 직원들과 마인드를 공유해서 직원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편해지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매일 드리는 직원예배를 통해서 직장을 보수를 받는 일터에 머무르지 않고 대표자와 직원들의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죠. 이런 은혜들이 이어져 직원들의 가정이 믿음에서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직원들이 입사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또 금방 자녀들도 잘 낳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해요.

또한 해외의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회사의 다른 경영이념 중에 ‘JECO를 세계로’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25명 정도 되는데 성씨가 10가지가 넘어요. 이것을 보고 저는 성경 속의 열두지파처럼 세계를 향해 날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계로 나아가면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채널에 바란다

순수한 복음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주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후원도 더 많이 하는 선교방송이 되어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시는 곳에 방송이 들어가서 현지 선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방송선교의 일을 잘 담당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